

전남 동부권 첫 역사 박물관 여수에 문 연다

317억 투입...여수시립박물관 내년 10월 개관 목표 수군조련도·이충무공전서 등 유물 1만6천여점 확보

여수시가 웅천 이순신공원에 건립 중인 여수시립박물관을 내년 4월 준공, 10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립박물관은 총사업비 317억원, 연면적 5천606㎡, 지상 1층 규모로 상설전시실 2개,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실, 세미나실, 수장고 등을 갖춘다. 특히 '여수와 바다'를 주제로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며, 전시와 교육이 결합된 문화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기준 공정률은 57.4%로,

전남도 동부권 최초의 국립 역사박물관으로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상설전시실은 두 개의 주제로 나뉜다. 상설1실은 주제관으로 여수의 섬 이야기를 다룬 '섬섬여수'를, 상설2실은 역사관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여수 역사를 담은 '해양도시 여수의 역사'를 전시한다. 기획전시실은 '바다로 펼쳐진 세계와 소통'을 주제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28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어린이체험실은 '끼지



여수시립박물관 조감도(왼쪽)와 박물관에 전시될 이충무공전서.



〈여수시 제공〉

지 않는 불빛, 여수산업유산의 비밀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여수의 산업유산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야외 공간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스

토리텔링과 휴게공간으로 꾸며지는 공룡 테마존, 여수 진남관 초석과 급백암 지 3층 석탑, 문인석 등으로 이뤄진 석물 정원, 전남도 기념물인 여수 오림동 지석군묘를 전시하는 중정이 조성될 예

정이다. 여수시는 박물관 설립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유물 수집에 나서 1만6천여점을 확보했다. 주요 유물로는 ▲조선 삼도수군의 훈련 모습을 그린 10폭 병풍인 '수

군조련도(水軍操練圖)' ▲이순신 장군이 명나라 신종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팔사품을 그림으로 그린 '팔사품도(八賜品圖)' ▲거문도사건 당시 거문도항에 정박했던 영국군함 수병의 항해일지인 'HMS 오데서스호 항해일지' ▲귀선도 팔사품도설, 난중일기 등 충무공 이순신의 기록을 수집한 전집인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등이 있다. 또한 시민 참여를 통해 여수의 11개 연륙·연도교를 주제로 한 벽면 타일화도 제작해 전시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립박물관이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전시와 교육이 이뤄지는 대표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공영민 고흥군수가 유자골 고흥한우 농가를 방문해 사육 환경을 점검하며 먹이를 주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전국 최고 '한우 개량단지' 자리매김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육성...전국대회서 우수성 입증

고흥군이 유자골 고흥한우의 꾸준한 품질 개선과 사육 환경 혁신을 통해 전국 최고의 한우 개량단지 자리매김하고 있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유자골 고흥한우는 2023년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성적 결과 1++이상 고급육 출현율 34.7%로 전국 2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우로 인정받고 있다. 2024 종축개량협회 통계에서도 초우량 한우 보유(57두) 전국 2위, 우량 한우 보유(644두) 전국 5위를 기록하며, 품질과 개량 양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초)우량한우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일반 송아지 평균 가격 대비 2~3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농가 소

득증대는 물론, 고흥이 전국 최고의 한우 개량단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흥군은 올해 열린 제21회 전국 한우 경진대회에서 전남도를 대표해 암송아지 부문에 출품, 전남 출품 개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1위)을 수상하며, 유자골 고흥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입증했다. 이 대회는 각 시도에서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 개체들이 암송아지, 미경산우, 번식 1~3부 등 5개 부문에서 경합을 벌이는 전국 규모의 대회다. 또한 지난해에는 제30회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고급육 분야 우수상(2위), 우량 한우 분야 최우수상(1

위)을 수상하며, 종합 최우수군 상(1위)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민선 8기 축산정책과를 신설하고, 축산업 발전에 주력한 고흥군의 정책적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민선 8기의 핵심 시책인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사업과 신규 시책인 우량한우 육성사업은 고흥한우의 우수한 우량 형질 개량을 촉진하며, 각종 경진대회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민선 8기의 중점 시책으로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비육우 경쟁력 강화와 번식우 경쟁력 향상을 통해 고흥한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최봉환기자

광양 중동근린공원 '친환경 목재 놀이터' 준공

안전·기능성 강화...조합 놀이대·집라인 등 설치

광양시는 2일 "중동근린공원에 친환경 목재 놀이터가 완공됐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사업은 플라스틱과 철재 중심의 놀이시설을 친환경 소재인 목재로 전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광양시는 지난해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총 2억원이 공사에 투입됐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와 시공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말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새로 조성된 놀이터에는 목재의 자연스러운 미감을 살리면서도 안전성과 기능성을 강화한 조합 놀이대, 집라인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했다. 놀이공간 주변에는 화단을 조성해 다양한 초화류를 심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향후 유치원·어린이집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공원 이용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택 공원과장은 "이번에 완공된 목재 놀이터를 통해 지역 어린이들도 심속에서 안전하고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와 확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기자

화순군, 도축산 시책 평가 우수상 축산정책·경영, 동물복지 등 성과

화순군은 "최근 전남도 주관 '축산 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상, 2021년 우수상, 2022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의 영광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축산시책의 원활한 추진, 시·군 자체 우수시책 발굴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축산정책·동물복지·축산경영·축산자원 4개 분야의 29개 항목을 평가하는 축산시책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화순군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녹색축산 육성사업 운영 ▲녹색축산농장 신규 지정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추진 ▲축산지원팀 소관 사업 집행 ▲가족사육밀도 개선 등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 /화순=이병철기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체험객 전년비 1.7배 늘어

장흥군 성과보고회서 의견 수렴·보완...전 연령층 대상 체험 '호응'

2024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체험객 수가 지난해 대비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2024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과보고회는 김성 장흥군수 주재로 이정환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박람회의 잘된 점에 대해 발전시키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의견 수렴 및 보완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잘된 점으로는 지난해 대비 체험객 수가 23만여명으로 약 1.7배 증가했으며 전국 병원·대학·협회 등 참여형 박람회로 운영해 체험객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점이 꼽혔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키즈체험존부터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람객 모두가 통합의학에 대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한 것이 호평을 받았다. 김성 군수는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성공리에 막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해준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통합의학의 메카, 건강1번지장흥 구현을 위해 통합의학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노형욱기자

보성읍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민간투자자 선정

해담 주식회사...볼링장 시설 등 건축·운영 비용 절감

보성읍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볼링장 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자가 선정돼 군 재정부담이 줄게 됐다. 2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보성읍에 건립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볼링장 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자로 '해담 주식회사'를 선정했다. 보성군은 볼링장 시설 등 건축 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직영 또는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지속 투입될 운영비 등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민간자본 유치를 지속 추진했다. 12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모집한 끝에 지난달 14일 해담 주식회사가 사업자로 응모했으며,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가 적격 사업자로 평가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시공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공

익성 및 창의성, 자금조달 및 투자비 환수계획, 손익 분석, 홍보계획 등을 심사했다. 이후 해담 주식회사는 보성군과 협약 체결 등을 거쳐 2025년 8월까지 14개 레인 규모의 볼링장 등의 시설을 설치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기부채납 한 후 투자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게 된다. 해담 주식회사가 민간투자자 설치하는 시설은 14레인 규모의 볼링장(1천163㎡)과 부속 휴게실(130㎡), 롤러 장비 대여점-매점(61㎡) 등이다.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인 '보성읍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6천80㎡ 규모로 지어진다. 주요 시설은 14레인 규모의 볼링장,



보성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보성군 제공〉

볼링장,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소공연장, 군의회 등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드림스타트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23대의 주차 공간도 보유하고 있어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볼링장, 롤러장 등의 여가 체육 시설이 군민의 오후 시간과 주말에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등 여가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민간투자자 선정을 통해 군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명품 담양 딸기, 해외 재배 네트워크 구축

네덜란드 플레보베리·프랑스 앙지에서 협약 체결

담양군은 "최근 네덜란드 플레보베리와 프랑스 앙지에서 담양 육성 딸기 해외 재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담양군과 네덜란드 플레보베리가 체결한 이번 협약은 기존 업무협약의 만료에 따라 담양 육성 딸기의 품질 유지와 신제품 딸기 육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프랑스 앙지에 담양 딸기 육묘 및 재배 희망지에 모종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담양군은 플레보베리에서 담양 딸기 모종을 공급받아 프랑스 앙지에서 육묘한 후 유럽, 아프리카 등 재배 희망지에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프랑스 앙지에서는 딸기 모종이 판매되는 만큼 담양군에 로열티를 지

급한다. 담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특작팀은 "앙지를 통해 2025년 딸기 육묘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담

양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블랙블러프를 통해 케냐 농장 1ha에 담양 딸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담양 딸기 재배 희망지에 언제든 모종을 공급할 수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 프리미엄 담양 딸기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